

III. 개항기·대한제국기(1876~1910) 신문 자료

○『독립신문』, 1896년 8월 1일, 「전국 23부를 13도로 고쳐 정하고」.

전국 23부를 13도로 고쳐 정하고 각도에 관찰사를 두되 두는 처소는 경기도는 수원, 충청 북도는 충주, 남도는 공주, 전라도 북도는 전주, 남도는 광주, 경상도 북도는 대구, 남도는 진주, 황해도는 해주, 평안도 남도는 평양, 북도는 정주, 강원도는 춘천, 함경도 남도는 함흥, 북도는 경성으로 정하고 그 전 한성부에는 판윤을 두고 광주 개성 인천 동래 덕원 경흥은 부윤을 두고 제주를 목사를 두고 13도에 관계된 각 고을은 다섯 등으로 정하여 군수는 그 전 같이 하니 (중략) 강원도 26군 춘천 양양 영월 고성 울진 낭천 횡성 원주 철원 평해 간성 협곡 홍천 안협 강릉 이천 통천 평창 평강 양구 회양 삼척 정선 금성 김화 인제

○『독립신문』, 1897년 1월 21일, 「울진군 서협면 삼근동에서」.

울진군 서협면 삼근동에서 작년 12월 23일 밤에 알 수 없는 도적들 40여 명이 각기 총과 칼을 가지고 달려들어 노도와 같이 총으로 쏘아 죽여 그 시체를 불에 태우고 남녀를 불문하고 무수히 난타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 4, 5명이고 사람의 집에 불을 질러 형체가 없이 타버린 집이 5호이고, 1년 내내 농사지은 곡식을 다 불에 태우고 돈과 의복과 소를 다 빼앗아 가려 하자 그 고을에서 병사 15명을 보내 잡으려 했는데 그 도적들이 안동군으로 향해 갔다고 강원관찰사 이봉의씨의 보고가 이달 10일 내부에 왔다고 한다.

○『황성신문』, 1899년 1월 6일, 「널리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진군 십이령 봉산 송추를 1895년 이후에 목상과 소금 굽는 사람이 무난 찍어내어 초목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더니 울진군수 김상일씨가 도입한 후 단단히 타일러 경계히 금단하니 거주민들이 말하되 우리 임금의 은혜가 초목에 입었다 하며 작년 갑작스럽게 끈 빗물에 떠내려 가고 무너진 민간 집과 무너진 제방이 100여곳이 되어 수리할 수가 전혀 없더니 300금을 기부받아 수축 안도케 하고 또 학교와 사당이 가까이 있는 땅에 거주민이 여러 차례 매장한 것을 전 군수는 대수롭지 않게 보았는데 김씨는 몸소 심리 심사하니 울진군 인민들이 끊임없이 칭송한다더라.

○『황성신문』, 1899년 10월 25일, 「김군수 가혹한 정치」.

울진군수 김용규가 올 9월초에 부임하여 3일 내에 연안 각처를 순찰하기로 하자 인민들이 서로 하례하며 태수가 민간인들의 질병의 고통을 직접 감찰하고 폐단을 제거할까 하였더니 뜻밖에 소금 만드는 사람 등을 잡아 가두고 소금 굽는 나무가 봉산의 나무라 하여 장형과

업전 8천량의 벌금을 매기고, 생활이 넉넉한 백성을 찾아가서 관아 수리에 보조하라 하는데 관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으면 체포하여 부과하는 벌금이 수만량이다. 항시 하급관원에게 말하기를 “정부에서 나를 너희 읍에 보낸 뜻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관습도 시찰하는 것이니 너희가 관의 명령을 거역하든지 민중 소요를 일으키면 순검과 병정을 불러 너희들을 멸문할 것이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육혈포가 2자루이니 불순한 자는 마땅히 참살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울진군민 장유근 등 수십 명이 상경하여 어제 내부와 농부에 호소한다 하더라.

○『황성신문』, 1902년 12월 9일, 「울진군 민중 소요」.

울진군수 허후씨가 지계감리로 겸임 시무한지 얼마되지 않아 민중의 소요가 일어나 면관 된지라 평해군수 장영환씨가 조사관으로 울진군에 와서 각 면의 해고된 사람을 초치하여 물어서 조사한 즉 관청안에 허후씨가 하거한 이래로 불기를 치는 장형이 실행되어 정치는 돈으로 좌우되고, 잡아 처리하는 것은 욕심에 좌우되는 지라 불효와 늑토를 얹어매고, 잡기와 징족을 금하며, 방축이 무너져 없어지자 이른바 농가의 방식으로서는 구할 수 없고, 떠다니는 나무를 주워도 봉산 나무를 가져와 감춘것이라 칭하며 상민을 위협해 그 피해는 평범한 백성에게 미치니 무릇 이와같이 과도하게 탐낸 돈이 거의 5천, 6천냥이요. 사환은 나라의 곡식인 지라 매석당 24냥씩을 기한을 기다려 가을에 독촉하여 거둬들여야 하며, 하나의 토지측량도 규정된 조목의 법의가 홀민군세에서 나와야 하거늘 토지의 기름지고 메마름을 계상하지 않고 오로지 숫자로만 땅의 구실을 매겨 임의로 등급에 차이를 뒤 말하되 “내가 감리함은 곧 백성들의 생사가 내 손안에 있다고 말하는 고로 주민들은 두려워 몸을 벌벌 떨고 뒷사람과 소통하지 못하여 모두 모여 슬퍼 원통해 하다가 군중 소요에 이르렀다 하였더라.

○『황성신문』, 1905년 3월 14일, 「광고 울진군수 윤우영씨가」.

울진군수 윤우영씨가 이 어려운 국면에 이르러 아침저녁으로 마음을 태우고 애써 농사와 잡업을 공부하기를 권하고 항상 글과 학문으로 다스려 어른들을 대함에 노력하여 듣고 그 자제를 타이름에 효제로써 힘쓰니 아주콩알만한 작은 고을이지만 칭송이 자자한 고로 현가지 무성이요, 상유지발해라 계묘 흥년에 박봉이지만 봉급을 기부하여 쌀을 배로 실어날라 궁핍한 집들의 빈사 지경의 목숨을 널리 구제하니 이같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본 백성들은 온통 모두 기뻐하고 영남 협잡의 모리배들이 두메사는 농사꾼을 침탈한즉 적발하여 궁극적으로 다스려 계속 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은 그 덕을 품고 그은혜를 관리들에게 돌리게 하여 부처가 살아서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이 입으로 칭송이 전해지고 있고, 인근지역에도 널리 퍼지니 이런 이유로 형사상의 송사가 많지않아 서로 부조하고 정당이 거문고와 학이 노는 물과 같이 서로 따라다니니 정나라 고을에 제금지미를 보는 것 같고, 축

나라의 마을에 오교의 노래를 듣는 것과 같으니 3년 동안 다스림이 획일적인 규정으로 하니 두보를 공손히 현세에 모셔서 일을 한다고 해도 누구도 이를 칭함을 개의치 않을 것이요. 올진 사인 전치일 최재만 안교철 등 고백

○『황성신문』, 1905년 6월 21일, 「울진군 보고」.

울진군수 윤우영씨의 보고를 근거한즉 음력 4월 12일에 일본인 10여명이 산해지간에 출몰하여 연안의 진을 잿더미로 만들고 높은 바위산으로 대피하여 위태로운 봉우리 정상에 기를 세웠는데 기면에 크게 써놓기를 빼거나 뽑아버리면 일본 형벌로 다스리리라 하였기로 사건 원인을 물은 즉 이곳은 우리 영토이니 너희 소관이 아니라는 고로 바로 순교를 보내 죄의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살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곳이 울진군 근남 근북면 등 연해 수십 곳이라 하였더라.

○『황성신문』, 1906년 4월 13일, 「울진의병」.

울진군 경내에서 2월 19일에 어떤 무리가 의병이라고 칭하고 경상도로부터 와서 읍에 쳐들어와서총을 쏘는 사이에 읍내의 백성이 소리를 듣고 나와서 힘을 합하여 물리쳤다. 그 무리가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근래에는 북면 죽변포에 도착하여 일본인 고하 역시 이어서 화포 1자루와 한화 60량을 탈취하여 갔다. 같은 달 21일 울진군수가 삼척묘소를 살피러 떠났다가 27일 군으로 돌아온지라 그 무리들이 관청이 비었다는 것을 듣고는 50여명이 울진군 불영사에 도착하여 사냥꾼을 괴롭여 그 무리에 넣고 백성들을 협박하여 군대로 편성해서 날마다 그 무리가 더해져 퍼지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번 달 5일 군민과 관속 100여 명을 모집하여 해당 처소로 지휘하여 보냈다. 그 대장 김현규라고 하는 자는 본래 장사로 칭해졌으며 의용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 포군과 몰래 모의하고 잠든 때를 타서 즉시 포살하였다. 그러나 그 나머지 도당이 군량미를 칭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곡식 100여 석을 빼앗았음으로 백성들이 대단히 원망한다고 울진군수가 보고하였다.

○『황성신문』, 1906년 5월 8일, 「경북의병」.

경북관찰사 신태휴씨가 내부에 보고하되 청송군수 보고를 근거한 즉 음력 3월경에 한 패전군이 있어 통문 1합을 거두어 왔는데 바깥면에 청송 의성 향교라고 쓰여있고 또 안동 진보 의거소라고 써 있어 긴급히 전하라 한바 반드시 창의통문이라 수신자를 본즉 통하는 말의 조어가 크게 말의 순서와 뼈대가 없고 발문인의 성명이 또한 없는지라 이 패전군을 잡아들여 조사 신문한즉 양덕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임중봉이라는 사람이라 인하여 체포하여 가두었고 또 인접한 영해군수의 보고인즉 어찌하여 비류들이 의병을 칭하고 울진 등지로 병정 주둔지를 구축하여 혹 평해 경계에 접하며 또 청송군까지 침범하여 주민의 우마를 약탈하며 평민

을 구타하여 근심하여 거당에 들어간 인원이 50, 60명이라 하며 또 영덕군수의 보고에 의하면 3월 27일에 읍내 5리경에서 포성이 연달아 발생한 고로 상세히 상황을 정탐한 즉 머리에 흰수건을 두르고 조총을 들은 자가 40여 명이요 쇠지팡이를 휴대하거나 환도를 찬자가 50명이요 의관을 입은자 10여명이 뒤에 따르는데 스스로 의병이라 칭하고 청송군에서 조총 8정을 탈취해 가고 민간의 곡식과 돈을 압류하여 몰수해 갔다고 한바 저무리들의 창궐이 강도와 다름이 없는지라 부근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와 각 군에 훈령하여 협력하여 추적 체포하라 하였더라.